

전북의 시장 경제사

소순열 · 원용찬



전북대학교



E00489695

신아

전북의 시장 경제사

초판 인쇄 / 2003년 5월 12일

초판 발행 / 2003년 5월 17일

지 은 이 / 소순열·원용찬

엮 은 이 / 전라문화연구소

펴 낸 이 / 서 정 환

펴 낸 곳 / 신아출판사

출판등록 / 1984년 8월 17일 제28호

주 소 /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51-30

전 화 / (063) 252-5633, 275-4000·0484

팩 스 / (063) 274-3131

E-mail / shina@shin-a.co.kr

© 2003, 전라문화연구소

값 9,000원

ISBN 89-7171-837-4 03300

※ 잘못된 책은 바뀐드립니다.

※ 저자와 합의, 인지는 생략합니다.

차 례

책을 내면서 ——— 3

프롤로그 : 전주를 알면 전북이 보인다(소순열) ——— 11

전통 재래공업의 변영, 산업도시의 열등생 ——— 11

전주 농업은 도시에 갇힌 풀이 되었다 ——— 13

내노라하는 기업 하나 변변히 없어 ——— 15

애물단지로 변한 산업단지 ——— 20

대형 유통마트 진출로 글로벌 격전장이 되어가는 지역시장 ——— 26

21세기에 거는 기대 : 일하는 곳에 돈이 있고 힘이 있다 ——— 31

제1부 근대 이전 전북의 경제와 시장(원용찬)

전라도와 백제, 초기 상업과 화폐의 심볼리즘 ——— 39

넉넉한 물산과 대시(大市)의 발달 ——— 39

초기 백제상업은 대외교역에서 시작 ——— 41

제례적 성격의 초기 시장과 백제 정읍사 ——— 46

백제 무녕왕릉의 매지권과 화폐적 심볼리즘 ——— 48

전북의 수공업 생산과 주요 유통 특산물 ——— 53

미친한 조선시대의 수공업자들 ——— 54

전라도 공산품과 특산물 : 종이와 부채 ——— 62

농민 수공업과 직물류 생산 : 포목과 면화 ——— 68

전북에서 물자 교환과 시장의 활동 ——— 72

활발한 상업활동으로 드디어 지방 장시도 형성 ——— 73

전라도에서 최초로 장시를 열 것인가에 대한 논란 ——— 75

정기적으로 5일장이 가장 많았던 지방 장시 ——— 83

쌀, 포목, 마포 등 전라도 시장의 거래 물품들 ——— 87

전주와 남원의 대장(大場)과 시골 장시들 ——— 93

상업도시로 왁자지껄했던 전주의 시전(市廛)과 남문 시장 ——— 101

한약재와 토속 약재, 전주 약령시의 약산약해(藥山藥海) ——— 108

시장권이 형성되고 도로 교통망도 발달 ——— 113

백제의 교통로는 소금 교역망을 따라 조성 ——— 113

조선시대의 역로(驛路)와 교통발달 ——— 114

삼남에 가장 많았던 행사들의 숙박지로서 역원(譯院) ——— 121

탁배기 한잔으로 여독을 풀었던 주막집 ——— 126

바닷길을 통해 쌀처럼 무거운 화물을 운송 ——— 129

금강 유역의 물산 집산지, 은진 강경포 ——— 138

서해안의 포구 상업권과 원격지 유통 : 미곡과 소금 ——— 141

금융 화폐의 거래수단과 유통망 상업 —— 149

상거래의 기준이었던 도량형의 문란 —— 149

17세기 지방 장시의 활기로 주조된 동전이 유통 —— 153

전국을 떠돌아 다녔던 객주와 장시의 보부상 —— 158

유통관련의 객주와 장시 보부상 —— 165

제2부 근대 전북의 경제와 시장(소순열)

군산 개항으로 전북의 빚장을 열다 —— 173

원래 군산은 한적한 어촌 마을 —— 173

군산이 개항된 까닭은 무엇이였을까 —— 176

군산에는 각국의 거류지가 있었다 —— 179

경매되는 토지들 —— 182

일본인이 각국 거류지를 경영하다 —— 185

식민지도시의 전형을 만들다 —— 188

일본 가로망(街路網)의 격자형 도시공간 —— 188

북부항만을 원형(原型)으로 도시가 형성 —— 190

조선인을 센징(鮮人), 엽전으로 부르며 하대 —— 193

일본인의 진출과 식민지 시장 재편 —— 197

한가했던 마을에 밀려드는 일본인 —— 197

군산에 진출했던 일본인은 어떤 부류였을까 —— 198

‘군산농사조합’, 토지침탈의 첨병 —— 202

일본인의 상권이 확대되다 —— 207

근대화 시기, 전북의 산업구조를 본다 —— 214

1930년대에도 공업화는 여전히 뒤져 있었다 —— 214

어느 하나 쌀과 연관 안된 것이 없었다 —— 217

군산, 전주에 집중된 가공공장 수준의 공업 —— 222

일본자본 유치에 서로가 앞다투었다 —— 225

전주와 군산의 치열한 공장 다툼에 총독부도 개입 —— 225

전주의 공업용지는 백만평, 시가지 3분의 1 —— 227

적극적인 공장유치에도 큰 성과는 없었다 —— 230

해방 이전의 시장과 상업활동 —— 233

일제의 시장 규칙으로 통제 받았던 시장 —— 233

시장도 제1호, 제2호, 제3호로 명칭 —— 235

재래시장이 쇠퇴하고 상설점포가 등장 —— 248

일본에 쌀을 뺏기고 면제품은 비싸게 사줬다 —— 254

일본으로 수출이 늘수록 가난해지는 전북농촌 —— 258

에필로그 : 시장 사회사, 또 하나의 역동적

삶의 공간(원용찬) —— 263

장시는 혼사를 맺는 중개소 역할도 맡아 —— 263

장날을 기해 동학혁명이나 3·1항쟁도 촉발 —— 265

“쑥 솟았다 고산(高山)장, 철철 흘러 장수(長水)장” —— 266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시장과 직선 도로 —— 267

해방과 현대화, 경제적 쇠락과 시장경제의 변화 —— 268

과거를 통제하지 못하면 미래로 갈 수 없다 —— 269